

# 트럼프 “임기내 우주기반 미사일 방어망 ‘골든돔’ 구축”

“미사일·드론 요격…244조 투입”  
북중러 극초음속 미사일 등 방어  
좌초 ‘스타워즈’ 전철 밟을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우주 공간 및 기술을 활용해 미국 본토를 지키는 미사일방어(MD)망 ‘골든돔’ (Golden Dome)을 자신의 임기 중에 실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와 중국, 북한 등의 미사일 역량이 고도화하는 가운데, 미소 냉전기에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추진하다 미완에 그친 이른바 ‘스타워즈’ 구상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구체화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백악관 집무실에서 개최한 발표 행사에서 골든돔의 설계를 결정했다면서 “내 임기가 끝나기 전에 전면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2029년 1월까지의 골든돔을 실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일정표를 제시한 것이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주군 참모차장인 마이클 게틀라인 장군을 골든돔 사업의 수석 책임자로 지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골든돔에 대해 “우주 기반 센서 및 요격 무기를 포함한 차세대 기술을 육상, 해상, 우주에 배치할 것”이라고 밝힌 뒤 “캐나다도 그 일부가 되기를 원한다며 연락해왔다”며 “그들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골든돔 건설이 완성되면 지구 반대편과, 우주에서 발사된 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는 역대 최고의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골든돔 건설 전체 비용이 1천750억 달러(약 244조원)에 이를 것이며, 이 가운데 250억 달러(약 35조원)는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 이른바 ‘크고 아름다운 단일 법안’ (예산 및 감세 관련 트럼프 대통령 기조를 반영한 포괄적 법안)에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는 레이건 전 대통령이 40년 전에 시작한 과업, 미국 본토에 대한 미사일 위협을 영원히 종식시키는 일을 진정으로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골든돔에 대해 논의했으나 이는 질문에 “적절한 시기에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알래스카가 이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며, 플로리다·조지아·인디애나주 등도 사업 추진 과정에 혜택을 볼 것이라고 소개했다.

골든돔은 이스라엘의 미사일 방공체계인 아이언돔과 유사한 차세대 미사일 방어시스템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27일 이를 미국에 구축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골든돔 구상은 적의 미사일을 발사전(前) 단계, 최초 비행단계, 비행중 단계, 목표물을 겨냥해 하강하는 단계 등 총 4단계에 걸쳐 탐지하고 요격한다는 점에서 현존하는 여타 미사일방어체계와 같은 개념인데, 가장 큰 특징은 우주 기반 요격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상 레이더로는 탐지가 어려운 신형 미사일을 인공위성에 탑재된 우주 센서로 추적하고 우주 공간에 배치된 요격기를 통해 상승 단계에 있는 미사일을 타격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계획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미국 본토 공격 능력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이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 면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밀리고 있다는 평가가 적지 않은 가운데, 북한의 우크라이나전쟁 참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우주 공간 및 기술을 활용해 본토를 지키는 미사일방어(MD)망 ‘골든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을 고리로 한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 강화는 우려를 더 키우고 있다.

미국 국방정보국(DIA)은 최근 미국 본토에 대한 미사일 위협을 평가한 보고서에서 “북한은 미국 전역에 도달할 수 있는 충분한 사거리를 가진 탄도미사일들을 성공적으로 시험했다”며 북한이 오는 2035년까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50기를 보유하게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또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성명에서 “지난 40년

간 우리의 적들은 재래식 탄두 또는 핵탄두로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순항 미사일 등 그 어느 때보다 고도로 치명적인 장거리 무기를 개발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의 목표는 힘을 통한 평화”라면서 “골든돔은 적대국들이 더 선진적이고 더 치명적인 장거리 무기를 개발하는 동안 미국 본토가 위협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골든돔 구상은 미국 입장에서는 레이건 전 대통령 시절 추진된 ‘스타워즈’ 구상의 ‘재판’이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레이건 정부는 인공위성을 이용해 적의 핵미사일을 요격하는 구상(SDI)을 추진했지만 예산 부족과 기술력의 한계에 부딪혀 중단했다. 하지만 이 구상이 소련과의 군비 경쟁을 가중해 소련을 소모전에 빠져들게 함으로써 냉전의 조기 종식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연합뉴스

## “이스라엘, 이란 핵시설 타격 준비 정황”

CNN “무기이동·훈련완료”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독자적으로 타격할 준비에 들어갔다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미국 CNN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의 군 통신 감청 등 정보 활동을 통해 이란 핵시설 공격 준비 정보를 입수했다.

이스라엘은 핵시설 타격에 필요한 무기를 이동하고, 작전 실행을 위한 공군 훈련도 완료한 상황이라는 게 소식통의 전언이다.

다만 이 같은 움직임은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격이 임박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라기보다는 이란에 대한 심리적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이스라엘 정부가 이란 핵시설 공습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렸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미국 정부 내에서도 이스라엘이 실제로 행동

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 분석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공습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이란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움직임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스라엘 내부에선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 추이에 대한 불만이 뚜렷하게 감지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의 우라늄 농축 능력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상태에서 협상을 타결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할 계획을 세우고, 폭격 훈련을 반복했다.

특히 지난해 직접 충돌 때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의 방공시스템 S-300이 큰 타격을 받은 이후 핵시설 공격 계획은 더욱 구체화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습할 경우 전면전이 발생하고, 미국이 휘말릴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베나민 네타냐후 총리를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 머스크 “완전자율주행 로보택시 내달 출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 로보(무인)택시 서비스를 내달 중 출시한다는 계획에 거듭 자신감을 드러냈다.

머스크는 20일(현지시간) 미 경제전문 케이블방송 CNBC 인터뷰에서 “6월 말까지 텍사스주 오스틴 도로에서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현재 운전자가 탑승한 채로 테스트 중인 가운데 “(운전자의) 개입이 전혀 없이 주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오스틴에서 수천 대의 차량으로 자율주행을 테스트 중이라며 “다음 달에 오스틴에서 잘될 것으로 보인다”고 자신했다.

다만 그는 초기에는 최대한 신중하게 운영해야 한다면서 “첫날에 1천 대나 1만대로 시작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신중하지 않다. 그래서 첫 주에는 10대로 시작해 20대, 30대, 40대로 점차 늘려가면서 아마 몇 달 내에 1천 대에 도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다음에는 캘리포니아의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와 샌안토니오(텍사스) 같은 다른 도시들로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자율주행차에 대한 통일된 연방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내년 말까지 미국에서 수십만 대, 또는 100만대 이상의 테슬라가 자율주행으로 운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 EU·영, 트럼프-푸틴 통화 하루만에 러 신규 제재

그림자 함대·무기 공급망 등 겨냥

유럽연합(EU)과 영국이 20일(현지시간) 대(對)러시아 신규 제재를 잇달아 발표했다.

EU 27개국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외교·국방장관회의에서 제17차 대러 제재 패키지를 공식 채택했다.

채택된 최종안에 따르면 주요 7개국(G7)이 시행 중인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우회하는 데 활용되는 일명 ‘그림자 함대’ 유조선 189척이 제재 명단에 추가됐다. 이로써 제재 대상 유조선은 342척으로 늘었다.

러시아 군산복합체를 직·간접으로 지원하거나 제재를 우회한 법인 31곳도 제재 대상이 됐다. 여기에는 러시아 업체 외에 튀르키예, 베트남, 아랍에미리트(UAE), 세르비아, 우즈베키스탄 등 제3국 업체도 포함됐다.

개별 제재 명단에는 제재 우회 혹은 러시아 무기 공급에 관여한 개인 17명, 법인·기관 58곳 등 총 75건이 추가됐다. 이들의 EU 내 자산이 동결되며 역대 여행이 금지된다.

특히 러시아 정부에 막대한 에너지 판매 수익을 제공하는 러시아 에너지 기업인 수르구트네프테가스도 개별 제재 명단에 추가됐다고 EU는 전했다. 이 밖에 화학 전구체 물질을 비롯한 이중용도·첨단기술 관련 제품 수출 제한 조치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EU 외교수장.

연합뉴스

도 확대했다.

같은 날 영국 외무부도 대러시아 압박을 강화하는 신규 제재안을 공개했다.

영국 제재안은 그림자 함대 유조선을 비롯해 우크라이나 민간 지역에 발사된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 등 무기 공급망을 겨냥하고 있다. 크렘린궁의 자금 지원을 받아 정보 작전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소셜디자인에이전시(SDA) 소속 직원 14명도 제재 명단에 추가됐다.

EU와 영국의 신규 제재는 사실상 ‘빈손 합의’로 끝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전화통화 다음날 발표됐다.

연합뉴스

## ‘방역 모범국’ 대만도 코로나19 환자 급증

중화권에서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하는 가운데 팬데믹(대유행) 당시 방역 모범국으로 주목받았던 대만에서도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

21일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위생복지부 질병관제서는 이달 11~17일 코로나

19로 인한 응급진료 환자가 1만9,097명으로 전주(4~10일) 9,978명과 비교해 88.2%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어 12~19일에는 코로나19 중증 환자가 93명 발생했으며 4명이 사망했다고 덧붙였다. 질병관제서는 6주 연속 코로나19 환자가 늘고 있다면서 현재 추세로 판단하면 내달

중순 최고 정점인 6만5,000여명에 이르고 유행은 7월 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 당국자는 대만에서 유행하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는 ‘NB.1.8.1’과 ‘XEC’로 각각 45%, 30% 비율로 검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질병관제서는 올해 들어 코로나19 중증 환자가 총 330명 발생했고 이 중 47명이 사망했다며 사망자는 65세 이상 만성질환자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